東亞日報
明朝 刊
本紙夕刊合十二面
電話光化門一九〇〇 代表番號

三國參謀本部會談 八日倫敦에서開催

壽府에서는로條約國會議 歐洲政局再次緊張!

【巴里五日發電通】 英、佛、白三國參謀本部의 技術的會談은 八日부터 런던에서 開催하기로 되엇으며 제네바의 로카르노條約國會議도 大體同日會期하야 開催될터인데 歐洲政局은 再次 緊張化될것인바 제네바에서의 로카르노條約國會議는 去三月 런던에서의 協議에 比하야 獨逸이 라인地帶 非武裝地帶의 ... 카르노條約에 依한 獨逸과의 折衝을 ... 今後三回의 佛外相聲明에 依하야 獨逸과의 交涉을 지금도 希望하고잇는것은 明白하나 英佛의 見解가 如何히 打開될는지 注目되어잇다

카氏의 來日을 機會로 日英會談을 開催

兩國間의 諸問題에 對하야 全面的 檢討를 行할터

【東京電話通信】 本日外務省發表 ... 하다 兩大使는 東京에 一日밖 有吉駐中大使 크라이브駐日英大使 ... 日英兩國間의 諸問題에 對하야 全面的檢討를 行하기로 되엇다 그리고 有田外相은 日英會談을 行할 方針이라 하는바 日本外交政策은 ... 日英兩國의 協調를 中心으로하는 東亞의 將來에 對하야 ... 注目되어잇다

伊太利와 瑞西의 國境

伊太利에 ... 이러한 國境도 閉鎖되게된다 瑞西가 伊太利側을 드는것도 理由가잇다 할것이다

카도간英大使 上海發歸國

日本에도들러 二日間을滯在

【上海五日發電通】 英外務省次官補로 榮轉한 카도간氏는 五日午後七時三十分 夫人同伴歸國의 途에 就하엿다 카도간氏는 途中 日本에 二日間 滯在하야 日本政府當局과 對中活動에 依하야 意見을 交換할 豫定인데 日本의 海軍政策 東亞政策에 對하야 그 眞意를 探知하리라고 觀測된다

日銀公定割引比率 七日부터 一厘引下

六日藏省과日銀에서發表

【東京電話同盟】 日本銀行은公定割引比率을 如左히 一厘引下하고 七日부터 實施한다고 六日午後五時二十分 發表하엿다 右割引比率은日本銀行創設以來 空前의 低率이다

一、商業手形割引比率 日 九厘

一、國債를 抵當으로하는 貸付利子及 國債를保證으로하는 手形割引比率

一、國債以外의것을 抵當으로하는 ...

深井總裁談

【東京電話同盟】 深井日銀總裁談 一般의 金融情勢는 이미 低金利方向으로 向하고잇어 ...

馬場藏相談

【東京電話電通】 馬場藏相談 政府는 組閣以來 低金利政策의 遂行을 聲明하고 ...

利下의 事情

【東京電話同盟】 日本銀行은六日午後二時 重役會를開하고 如左한事情에基하야 金利를 各一厘引下하기로 決定하엿다

◇日本銀行發表 現下의 金融界及經濟界의 情勢 ...

土耳其가日本에 武器를注文

高射砲、潛水艦其他

【大阪電】 土耳其政府로부터 大阪商工會議所에 來訪하엿다 ... 土耳其는 ... 高射砲、潛水艦其他 近代武器를 日本에서 多數購入하고저 ...

山西共產軍이 山西軍과妥協?

續續移動을開始中

【天津六日發電通】 陝西省에 侵入한 共產軍은 山西軍과 妥協하야 ...

今後獨自的立場에서 外蒙에서自由行動

蘇蒙相互援助協定에對하야 滿洲外交部重大聲明

【新京六日發同盟】 滿洲國外交部는 六日午後一時 蘇蒙相互援助協定에 關하야 外交部聲明을 發하엿다

一、蘇聯邦은 ...

二、다시 相互援助라고 ...

三、相互援助는 ...

四、又中華民國에 ...

蘇聯機越境 撮影

滿洲外交部 嚴重抗議

【新京六日發同盟】 去三日 蘇聯機가 滿洲國領土를 越境撮影하엿다하야 滿洲國外交部에서는 ...

中國側傍觀

蘇蒙同盟을

【上海六日發同盟】 蘇聯外蒙軍事協定成立에 關하야 南京政府當局에서는 ...

冀察政權을指導

最高顧問格으로 松室少將北平에

【天津六日發電通】 北平特務機關長 松室少將은 ... 冀察政權의 最高顧問格으로 ...

오타와協定廢棄는 日印交涉에大支障

外務當局에서重要視

【東京電話電通】 六日外務省着電에 依하면 五月 ... 印度政府는 英國政府에 對하야 오타와協定廢棄를 通告하엿다 ...

貴族院改革意見에 政府의態度愼重

먼저可能한範圍를決定하야 具體的實行案作成

【東京電話同盟】 ...

常務委員會開催 改革問題協議

貴族院研究會

【東京電話電通】 貴族院研究會에서는 六日午後零時半부터 常務委員會를 開催하고 ...

師團長會議와 陸相訓示內容

【東京電話同盟】 ...

火曜會幹部 意見交換

【東京電話同盟】 貴族院火曜會의 幹部 ...

佛政府對右翼 對立去益激化

【巴里五日發同盟】 ...

來十五日頃부터 朝鮮銀行도追隨

結局二厘假量引下

日銀은 公定割引比率을 一厘引下하고 七日부터 實施하기로되엇는데 朝鮮銀行도 依然 이에追隨하야 利下하기로 內定하고 大體 十五日頃부터 實施하게 되지안흘까 觀測된다 ...

消息

▲桂貞植、金顯哲(同夫人)兩氏 入京次本社來訪

夕刊後市況 (6日)

期米先物後場
當限…七五七 先限…七五四
三品
當限…五九三 先限…五九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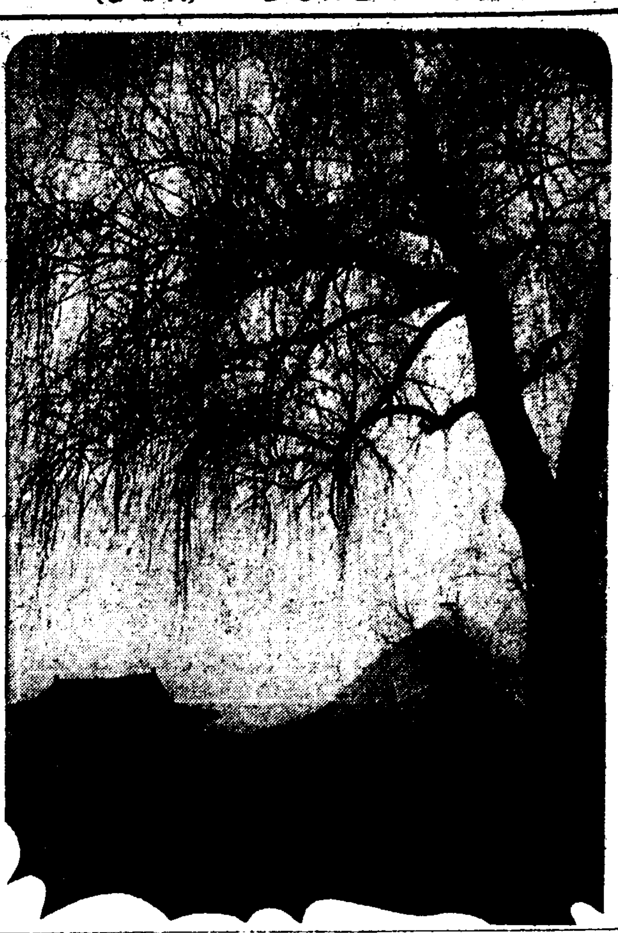
一東亞 短評

□ 天勝一行이 京城로 이단 법석. 이것도 奇術이든가? 藝術이든가?

□ 寒食 날에 봄비가 부슬부슬. 豊年의 前兆라면 어쩌랴 조흘시고, 不豊의 눈물이라면 더 한층 설은지고!

□ 伊國 制裁에서 獨逸로 集中하자고 佛國이 云云. 또다시 한 가 생기면 불행은 無事할까.

□ 伊國가 또 다시 여기 言論을 ... ? 제발 인제는 그만 하지!



雨後春色

思想犯觀察法案을 朝鮮서도研究立案中

保護審査會案도議會에提出

嚴罰主義에서轉向方針으로

일본내지에서의 사상범관찰법(思想犯觀察法)과 아울러 사상보호심사회(思想保護審査會)의관제안이 오는특별회의에 제출될듯하야 사상범으로서 일본내지보다도 오히려 많은 조선에도 그를 시행하고저 총독부법무국에서는 방금 그의 관계법안을 조사 연구하야 입안중이라 한다. 그의 내용은 아직 극비에 붙이나 일본내지의 사상범 관찰법과 그의 관련된 사상보호심사회관제에 준거하야 입안되는것으로 그의 골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각계통의 사상관계자를 세밀히 관찰하야 종래의 엄벌주의만을 고집치아니코 사상범각관계자의 내면을 심사하야 회유 또는 전향의 제방침으로써 관대한 처분의 새방법을 고려하는것이라 한다.

好景氣裡面에 "罪와罰"

鐵窓客一萬八千名

罪없이 罪입은 애기스물둘

思想犯人은八百五十餘

작금의 풍성풍성한 호경기도 가난한 빈곤자에게는 그림의떡이라는격으로 죄와벌의 혜택이는 철창객은 날마다 늘어간다. 지난三월말 법무국행형과 조사에 의하면 전조선 각형무소에 수용된 수형자(受刑者)가 一萬六千二百十一인, 형사피고인(刑事被告人)이 一千四百二十六人, 노역장에서의 유치자가 四百六十六인 모두 一萬八千二百三十六인이엇다.

이밖에도 죄없는 젖꼭의 어린애도 죄잇는 어머니를 떨어질수가 없어 어머니에게 달려잇는 애가 사내애八명, 계집애十四명 모두二十二명이수용되어잇는것이다.

이를 제외하드라도 지난二월말의 수용자총수를 전월말현재에 비교하면 수형자는 二十五명이 증가하고 형사피고는 二十명이 감소되고 노역장의 유치자는 百五명이 증가하야 결국 百五十명이 증가하얏이다.

그리고 그를 전년三월말 현재에 비교하여보면 형사피고인은 二百三十三명이 노역장의 유치자는 十六명이 각각 감소하엿으나 수형자는 五百二十三명이나 격증하야 결국二百七十四명의 증가인것이다.

이를 또다시 조선인과 일본내지인、외국인의 별로보면 다음과 같은데 수형자 一萬六千二百七十一명중에는 사상범이 남자八百五十명、여자七명 모두八百五十七명이다。

	受刑者	刑事被告人	勞役場留置者
朝鮮人 男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人 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本人 男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本人 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外國人 男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外國人 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男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坡州殺人犯 京城에潛入

◇市內各署에手配

파주군 탄현면 오금리(坡州郡炭縣面五今里)三百二十번지 김흥성(金興成)(二六)은 지난五일에 동리 허순태(許春泰)(三二)를 살해하고 어디로 다라나 버리엇다.

그의 살해원인은 아즉 미상하나 살인범인은 경성부내로 잠복한 형적이 잇다고하야 부내각서가 협안으로서 범인을 수사중이라한다。

酒場서殺人

一名卽死一名重傷

[도문지국전보] 五일 오전 영시반경 도문시(圖們市)에잇는카페ー「쓰우메」에서 술을 먹고잇든 도문시 구시가 송월구(圖們舊市街松月溝)에 사는 황영대(黃永大)(二三)는 접 작석에서 술을먹고 잇든 김병보(金炳保)(三○)와 사소한 일로 싸홈을 하다가 돌연 품속에서 단도를 끄집어 내가지고 김병보의 복을 찔러 즉사케한후 김병보와 같은 좌석에 앉어잇든 김선국(金宣國)(二○)의 복부를 찔러중상을 입히고 어디로인지 도주하엿다 한다。

이급보를 받은 도문 영사관 경찰에서는 즉시 범인의 행방을 수색중 동十一시반경 범인은영사관 경찰서에 자수하여왓다 한다 그런데 중상을 당한 김선국은 즉시 중앙병원(中央病院)에 입원하야 치료중이나 생명은 자못위험하다고 한다。

兄님돈갖고 高飛한아우

부내계동정(桂洞町)二번지의六十호 이달우(李達雨)의 아우 이창우(李昌雨)(二三)는 작五일에 자기형님의 돈一千五百원을 가지고 어디로 달아나버리엇다는데 그부형은 소관종로서에 수색원을 제출하야 그의 소재를 방금수사중이라한다。

家貧을悲觀 出家한靑年

부내 주교정(舟橋町)六十四번지 김영호(金永浩)(一九)는 지난二일에 집을 나간채로 금六일까지도 돌아오지안흠으로 그의집에서는부득이 소관 본정서에 수색원을 제출하고 그의 소재를 수사중이라한다。

그의 집에서는 그가 세상사리가 가난한것을 비관하야 그와같이 나가버린듯하다 하며 혹은 엽서자살하엿는지도 모른다고 한다。

집나간少女 ...

경 시내 의주통(義州通) 一정목 부근에 김포비(金鳳非)(一六)라는 아이는 집을 나간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서대문서원이 발견하고 동서에서 보호중이라 한다.

少年少女犯罪激增

昨年에九百餘名受刑

家庭과社會的指導不足으로

사회적지도와 보호가 적은 조선에는 소년소녀들의 범죄가 해마다 늘러가고 잇다.

최근 법무국 행형과 조사에 의하면 작년말현재 十八세미만으로 형을받은자는 소년이 八百五十五명 여자가 四十九명 모두 九百四명이엇다.

그중에는 처음으로 죄지은자가 八百二十七명, 재범자가 九十九명이다。

이를 지금으로부터 五년전 소화六년말현재 七百九명에 비하면 百六十一명의 격증인데 그를 각 년말현재의 남녀별로보면 다음과같이 재범자의 대부분이 남자이요 여자의 재범자는 극소수이다。

年次別	男女	初犯者	再犯以上	合計
昭和六年末	男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七年末	男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八年末	男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九年末	男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十年末	男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再犯二百五十 女子는再犯없어

그리고 二十세미만의 수형자는 소화十년말현재 초범자가 六百二十六명, 재범자가 一百五十一명 모두 八百七十七명이엇다。

이역시 소화六년말현재 七百五十九명에 비하면 百十八명의 증가인데 그의 범죄수별을 보면 다음같이 재범이상자는 여자는 전연 없고 남자뿐인것이다。

	初犯	再犯以上	合計
昭和六年末 男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七年末 男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八年末 男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九年末 男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十年末 男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避亂途中主婦잃고 彷徨하는三父子

山地서都會로왓으나갈곳없이

在滿十八年만에남겨진哀話

[봉천] 만주사변이 이러난후 가진고초를 다겪으며 이리로저리로 방랑하다니며 살길이잇을가하야 부처초가 떠돌다가 특히봉천에 왓으나 의지하고 잇든 안해를 도중에서 죽어버리고 의사를 말못하는 벙어리 아들과어린것들을 다리고 정처없이 배회하는 四十여세되어보이는 노인이 봉천조선청년회(朝鮮靑年會)를 차저가서 애원한 비참한 사실이 잇다. 그는 원적을 평북 삭주(平北朔州)에 둔 김경찬(金敬贊)(四七)이라고하며 제로부터 十八년전에 만주로건너와서 흥경현무경보(興京縣…)에서 十여년간 화전민 생활이나마 알뜰이 지나다가 지난 사변당시 쪼끼여 본계호(本溪湖)로 갓든것인데 지난해에 또쪼기여나서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다가 영구를가면 농상이 나을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찾어가든것이라고한다 무일푼한 그네들은 엣시간이면 갈수잇는 교통기관도 가튼 도보로 몇날을 가든 도중에 먹지못하고 어린것들의 당녀 돈밟은 안해(金氏)(三七)는 그만영양부족으로 「현지부」라는듯 만주인집에서 말못하는 十七세 벙어리 아들과 「五세 三세된」 어린두아들을두고 그만저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엇다 한다.

이참담한 정경을 남지만주인 송장이사비를주어 조선인이 만히사는 봉천으로가라고 한것이라한다.

봉천에 도착하기는 하엿으나 구경도하여 보지못하든 너른 도시에 갈바를 알지못하고 봉천거류민회(奉天居留民會)로 찾어갓으나 그곳에서도 어찌하는 도리가 없다는 말에 어찌할 수가 없어 누구의지시로 청년회를 찾어온것이라고한다 봉천청년회에서는 하로 정편이 가장 딱한 사정이 딱한것으로 삼일간의 일시 수용을 일으키엇다 한다.

金庫를盜失

[수문진] 삭천군(…)수문진(…)의 집에서는 수일전 금고에 (…) 전기 책상우에 두었든 금고에는 수형을 지불하려고 현금 三백원을 너허두엇엇으므로 그집에서는 당황망조하야 즉시 주재소에 고발하야 북하 수문진주재소에서는 범인을 엄탐중이라는데 그날밤 전후 좌우로 엄중히 잠가두엇든 유리창과 방문이 열린것으로보아 범인이 매우교묘한 방법으로 침입하엿는지 혹은 그집이 숙지인관계상 범인이 숙근으로 가장하고 미리부터 잠복하고 잇엇든지 여러가지점으로 범인수사에 맹렬히 활동중이라 한다.

梨專文科와 保育生再募集

부내 대현정(大峴町) 이화전문(梨花專門)에서는 문과(文科)와 보육(保育)의 입학생을 재모집을 한다는데 원서제출은 四월十四일안이오 시험은 동十五, 十六양일이라는데 상세한것은 동교에 문의하기를 바란다고 한다.

五百紅槍會軍에게 滿洲軍四十餘名全滅

輯安縣에서大激戰

[봉천六일발전통] 작五일오전七시경 만주국군(滿洲國軍)○○병은 집안현하(輯安縣下)에서 홍창회(紅槍會)와 ○○혜명군의 연합한 약五百명을만나 격전하엿으나 중과부적으로 만주국군은 전사 一, 부상四, 행방불명 三十八명을내어 전멸하엿다는 급보를 접하고 통화(通化)수 등의 ○○대(…隊)와 만주국군은 출동하야 전기적군을 추격중이다.

逃走한犯人은 窃盜前科者

◇三坂通拳銃事件

四일밤 부내삼판통(三坂通)一○一번지 남방치(南方治)의 집에서 실탄을 재어둔 권총이 없어진 다는것과 그에대한 피의자로는 그 집에 고용인으로잇든 손정훈(孫…)(二○)이란것도 보도하엿거니와 그에대한 지문과 전과의 유무를 조사한결과 그는 재작년 二월에 절도죄로 용산경찰서에서 피검되어 그후김천(金泉)소년형무소에서 一년六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나온 작년一월十일에 출감한 것이 판명되엇다 한다.

그리고 전기손정훈은 직업소개소의 소개로 투비직에 취업하게된 것으로 용산경찰서에서도 이와같은 전과자를 소개한 직업소개소의 인사소개에 대하야도 그진상을 조사하리라 한다。

朝共江陵工作事件

崔鍾聲에五年役

주목되는 이도는 오는十二일

[함흥지국전화] 조선공산당강릉사건의회 공판은 오후 一시二十분부터 함흥지방법원에서 최종성(崔鍾聲)(…)부터 사실심리를 마치고 맨내종에 퇴정명령을 하엿든 최종성(崔鍾聲)도 심리를 하엿다。

대정검사는 당국과같이 최고五년 최하一년六개월의 체형을 구형하엿는데 피고들은 종시一관으로 검사사실을 부인하엿으므로 오는十二일의 판결이 주목된다。

最低一年六個月求刑

◇求刑

崔鍾聲懲役五年 金在鎬、崔慶永各四年 曹昌大、李元明、朴益福各二年 崔根福各一年六個月

學年延長期成會

[보은] 보은 속리공립보통학교(俗離公普校)는 현재 四년제이므로 동교를 졸업한 아동들은 더배우고저 하여도 더배울길이 없으므로 이것을 유감으로 생각한 동교의 학부형은 하년연장의 필요함을 느끼고 지난달하순경에 학부형 수백명이 동교에 모여가지고 학년연장의 기성회를 조직하엿다는데 동회의 임원은 아래와같다고 한다。

▲회장 金丙烈 ▲副會長 李大元

明川留置場에 發疹지브스猖獗

또警官三名이入院、

[명천] 명천(明川)읍내에 발진장티브스(發疹窒扶斯)가 발생하야 그방역에 노력하든 경찰관의원에 입원하엿다는 사실은 기보한바어니와 그후 계속하야 창궐 만연하는 병세는 장티브스이 지휘하고잇는 방역진은 경찰관서에 유치중이던 환자의 증세가 유치장안은 마치 아비규환의 감이잇다고하는바 그후도 경찰관이 三명이나 나남도립의원에 입원하엿는데 입원환자중에는 경찰관이 중태라하며 명천경찰서에서는 전연병에 인심이 대단히 소란하엿으며 이병은 사포(西浦)동지에서 침입하엿다고한다。

反滿軍襲擊

中江鎭對岸에

[경무국착전] 四일오전四시二十분 중강(中江)경찰서장 장성(長城)주재소 도방(都坊)감시소의 즉대안임강현서회구(臨江縣石灰溝)에 개산둔(開山屯)의 一대二十여명이 습래하야 동지 민가에침입하야 약탈을개시하엿다。

이정보를 대안으로부터 합도(合圖)에 의하야 도방감시소진전(…)현장에급파하고 엄중 경계중이다

[혜산진] 순사이하三명이 즉시현장에 출동하엿든바 그들은 협강(挾江)에 진출하엿든 일방 강(江)에 향하야 건제하엿으므로 경관대에 향하야 발포하엿으므로 즉시이에 응전二十분에 서회구오지에 격퇴하엿다。

이급보에 의하야 장성주재소에서는 좌등(佐藤)순사이하 三명을 현장에급파하고 엄중 경계중이다

萬餘學齡兒에 千名未滿就學

[박천] 박천(博川)전군내의 학령아동이 一만一천二백六十六명인데 금년도에 입학한 아동수를보면 九개보교(普校)에 五백十五명 四개간이교(簡易校)에 一백四十명 七개사학(私學)에 二백八十명합하야 겨우九백三十명에 불과하다。

금년三월에 실시공보고(…)

新義州女高認可

寄附十二萬圓完納

新入生募集、廿日開校

[신의주지국전보] 다년간 현안이든 신의주 여자고등보통학교(新義州女子高等普通學校)설립에 대하야 정부도 학무과에서는 그에대한 기부금을 중수중이든바 최근까지 十二만원이 완납되엇으므로 총독부에 인가 신청을 하엿든바 인가되엿다는 전화가 六일 동부무과에 왓다 한다。

그리하야 우선 가교사를 신의주 고등여학교(新義州高等女學校)에 정하고 약五十명의 신입생을 모집한후 오는 二十일부터 개교하도록 진행중이라 한다

[안동] 금년三월에 전공보교(…) 졸업생은 一백一명 중에서 상급학교로 갈수 잇는 아동들은 근근 (…)이라 하며 그 이외의 아동들은 (…)

洞中財産萬圓

講習所에寄附

咸北教育界의喜消息

[나남] 경성군 용성면 농포동(鏡城郡龍城面農圃洞)三百二十여호의 공유재산 한아 三千여원을 동내의 유지 (…)에서 경영하는 농포공립강습소(農圃公立講習所)에 기부하엿다는바 이것은 농포동의 이 장래에 대하야 (…)

[옹진] 금년一월에 교사(…) 한편(…) 이 강습소는 (…)

學校와工場等에 結核豫防等施設

痲藥과 飲料水도 取締方針

今日부터衛生課長會議

각도 위생과장회의는 예정과 같이 六일부터 八일까지 三일간 총독부 제二회의실에서 개회하게되어 제一일은 오전九시三十분부터 지전(池田)경무국장 통제로 진행되고잇다.

개회벽두 국장의훈시 지시, 주의사항등이 잇은후 결핵예방시설(結核豫防施設)에 관한 사항이 토의될터이다 七일에도 그것에 관한것을 계속적으로 토의하고 보건의무(保健醫務)와 약(藥)에 관한 사항과 방역등에 관한것을 토의할터이라 한다.

이번의 위생과장회의는 무릇병마약중독자등의 예방법회의 뒤를 이어 소위 망국병이라는 결핵에 방에 관한것이 주제이나만치 중대성을 가지게되어 주목되고 잇다.

그리하여 이회의에서 토의되는 사항의 골자는

一、工場과學校等에結核豫防施設에關한것 하교공장、기숙사

一、공설장(公設場)여관(旅館) 기타다중의 출입하는 장소의 위생시설의 불비는 것을 위생상 한인이점으로 이러한것의 채광(採光)환기(換氣)(…)의 상황을 조사하야 개선토록 지도할것

二、飮料井戶의改善에關한것 도시이외에서는 대개 우물로서 음료수를 얻게되나 비위생적이어서 민중보건상 중대한영향이 잇으므로 점차로 개선토록할것

三、麻藥類의濫用防止에關한것 중독자의 근절을 기하기위하야 마약부정인(麻藥不正販賣)의 철저적 취체와 중독자 치료후의 선도등이다。

四、藥業者의不正取締에關한것 이것을 철저하게 하지못하야 생산자와의 연락이 불충분하다는 예곤란을 느끼는바가 잇으므로 이것을 유의하야 통제할것。

五、癩豫防에關한것 최근에 경향불충하야 만연하고 잇으므로 종두외보급기타 방역조치를 철저히하고저 하자는것

六、(…)

七、(…)

天氣 豫報

오늘의天氣 흐립니다

(氣象) 四月七日(火曜日) (陰三月十六日)(己未)

日出 六、一○ 日入 七、○○

月出 七、三一 月入 五、四八

滿潮 仁川 五、一五 後 五、三○

木浦 八、四五 後 九、○○

釜山 九、五○ 後 一○、○○

本報五千號記念膳物

本社特選 朝鮮道別現勢地圖

第七回 忠淸南北道 四月中旬配送

이地圖는 道別地圖로서는 朝鮮初有의 最大 最精確한것으로써 府、郡、面、洞의 行政區域과 山系 河海의 全般地勢는 勿論이요 鐵道、道路와 産業分布特히 現下萬人이屬目하는 金銀銅 其他 重輕金屬의 分布狀態가 一目瞭然하며 더욱히 市街及里程地圖가 잇고 人口、財政、敎育等數十種의 極히 要領잇는 統計圖表가잇어서 現勢地圖로서 가질수잇는 內容에 萬一의 遺漏가없읍니다。道를 따라서 或은 新聞一頁大、二頁大로 縮尺은 五十萬分之一이며 一年四次定期로 發行하야 그때의 月定讀者에게 配付하기로하는것입니다。朝鮮의 現勢를 알어야할 二千萬 우리는 반듯이 이地圖를 처음부터 끝까지 十三枚를다 모아야 합니다。

附圖와圖表

■道內歲入及歲出 ■道內林野面積 ■道內名所古蹟 ■道內敎育狀況 ■道의位置及面積 ■道內府郡別人口、邑面里數 ■道內行政區劃 ■道內職業別戶口 ■道內耕地面積 ■道內總生産額 ■道內營農種別戶口 ■道內文盲統計 ■忠州市街圖 ■淸州市街圖 ■大田市街圖

年四次三個月마다定期發行

ClibPDF - www.fastio.com

社說
農村兒童을愛護하라
死亡率은都市의五倍

一

農村의 ... [illegible]

二

그러면 그原因은 어디 있는가 ... [illegible]

三

... [illegible]

四

그뿐이니라 農村은 文化的으로 ... [illegible]

十三人委員會 前途는悲觀的
무首相의態度强化로
로카르노締約國會議에도影響

【제네바五日發同盟】十三人委員會는 八日제네바에서 開催되어 ... [illegible]

歸國하는佛大使 英外相에新覺書

... [illegible]

前途를依然樂觀

... [illegible]

스에運河의舟運
伊에戰爭의影響反映

伊에 戰爭의 影響을 第一 ... [illegible]

伊에戰爭과運河

一九三五年中의 스에스運河 ... [illegible]

通常船舶은不振

... [illegible]

玄米常食은……
消化에不良
◇榮養學界에重大話題

日本榮養學會에서는 去二十二日 ... [illegible]

朝鮮의얼 (第二十五)
新羅修壞의蹟 (十一)
□□□ 鄭寅普

一、賢主의繼作

... [illegible]

漫畫世界

日米의 〃戀愛鬪爭〃！
中國孃은 어디나 맘쏠리는데가 없건만
—美國「콜리어쓰」誌에서轉載—

內外雜誌

蔣介石氏에 實子反駁狀

【모스크바電通同盟】 中國共產黨 ... [illegible]

聯盟館新築 今世의阿房宮

【제네바同盟通信】 ... [illegible]

콤민테른에서 西革命指導

【하바스電】 ... [illegible]

中繼放送
로시아의兵力
【中】 커렌트·히스토리誌

上述한바와같이 蘇聯邦이 軍 ... [illegible]

【報道】 ... 【日獨】 ... 【混合】 ... 【歐洲】 ... 【危機】 ... [illegible]

新刊紹介

▲日新 第八號 ... [illegible]
▲梨花 第六輯 ... [illegible]
▲專賣の朝鮮 四月號 ... [illegible]
▲基督申報 四月一日號 ... [illegible]
▲文學 四月號 ... [illegible]
▲國民法律 四月號 ... [illegible]
▲女醫界 四月號 ... [illegible]

更少美容의秘傳
"五個의星"

❶ 이마우에가루건너가는굵은주름살은、更少化粧水クラブ乳液을늘발르시면、綜合호르몬의作用으로自然히없어집니다。

❷ 눈추리에생기는잔주름은、綜合호르몬을含有한クラブ美身クリーム又는クラブコールドクリーム를잘문질러너흐면、말쑥하게없어저버립니다。

❸ 여드름、죽은깨、검버섯으로煩惱하는분은クラブ乳液又는藥用クラブ美身クリーム를使用하시면專賣特許의脾臟酵素의藥理作用으로、神通하게도어느틈엔지없어지고、깨끗한肌膚가됩니다。

❹ 입가에생기는주름과弛緩은、クラブ乳液又는世界에比類가없는强度호르몬을含有한藥用クラブ美身クリーム로皮膚를根本的으로젊게하야주름살과弛緩이없는젊디젊은肌膚를만듭니다。

❺ 二重턱과咽喉의弛緩에는藥用クラブ美身クリーム를꼭써서야합니다。이部分에잘문질러너흐시면、不知不識間에輪廓이緊張하야토실토실하고보드러운肌膚가됩니다

藥用クラブ美身クリーム

更少化粧水
クラブ乳液
구 라 부
五〇전

專賣特許
クラブ綜合호르몬
脾臟酵素 含有

地方論壇

米穀檢區를改正하라

淳昌 一記者

淳昌米穀檢査區域을群山(裡里)管轄의 道行政區域에서 木浦(丸)木浦檢査區域으로 改正하라。 理由는 여기서 政治的理論을 闡하려고 하는것은 아니지마는近日淳昌郡의有志의 淳昌米穀檢査區域에 關한 道、郡當局의 陳情이 잇엇다는것을 아는바이다。 그래서 이問題를 들어서말하고저 한다。

이는 淳昌의 產業發展에 重大한影響이 잇게되는 郡民七萬餘人의 重大한 利害問題이다 行政管轄區域과 生產區域과 檢査、輸出區域과의 矛盾에서 이러나는 米穀生產品質의 不合理한 現狀은 打破되어야만 할것이다。

淳昌의 行政區域은 全羅北道에 屬하나 地理的關係로보아서 生產品輸出、消費品購入의 經濟的關係로보아서 全羅南道의 [illegible] 取引은 [illegible] 하고잇다 그리하야 產米의 [illegible] 上으로 보아서 最優良한 地位를 占하고 잇음에도 不拘하고 [illegible] 行政區域에 구애되어서 決定된 群山(裡里)管內에 屬하게됨으로 玄米一石當、日本內地市場의 [illegible] 에 金三十錢의 [illegible] 一斤에 [illegible] 以上의 損을 보게되는 [illegible] 山은 木浦에 比해서 運賃이 一石當玄米二十五錢의 高率의 現狀에 잇으므로 結局에 生產者에게 미치는 損失은 正租一斤에 一厘四五毛를 計算하고도 남는다。

淳昌의 生產租의 實際賣買高는 年十萬石에 達하게되는데 一萬五千餘圓의 [illegible] 이 七萬郡民中에서 없어지게된다。 또한 朝鮮內의 實際取引狀況은 最高一石當 八十錢의 格差를 生하게되는때가잇다。

그러면 當局은 此程度 又는此以上의 金額을 郡民一般에게 補助치는못한다할지라도 行政區域上 矛盾한 問題과 生產品移出區域의 矛盾에서오는 行政의 損失을 區域改正의 可能에서 補充할수가잇음에도 不拘하고 그대로 放置한다는것은 그 理由가 那邊에 잇는지 알수없다。 當局者여! 深甚한 考慮를 加하야 速히 區域改正을 斷行할지어다!

進永普校入學難

進永 一記者

進永公普校에서는 今年度 新學期에 收容生徒를 查定하엿는데 出願者는 三百名에 收容定員은 七十名이라고 하므로 남어지二百餘名은 배움의 길에서 쫓겨나와 將次 어디로 向할것인가? 勿論 救濟할方策이 없으니까 文盲迷路에서 彷徨할것이 事實이요 또그들의 前途가 暗黑할것도 避치못할 形勢이다。 地方有志와 當局者態度에 그대들의 確知한 [illegible] 가? 洋洋한 希望이 가득찬 貧寒한 子弟의 入學의 [illegible] 을 얻지못하고 한숨짓고 도라가는 [illegible] 는 [illegible] 良心에 刺戟을 받을것이다 學父兄된 義務로서 [illegible] 아니며 더욱이 敎育을 主宰하는 當局에서도 深甚한 考慮가 잇어야 될것이다。 筆者는 지난 二十五日 [illegible] 校生徒查定時에 쫓겨나오는 눈물어음은 兒童을 볼때는 참으로 가슴이 아팟다。 進永諸氏여 [illegible] 問題가 學級增加이다。 가치 [illegible] 다가치 努力하기를 바라는바이다。

洛江治水의根本策

二千八百萬圓豫算으로 十年計劃의大砂防工事

三百餘名會集裡居昌서起工式

荒廢의四萬町步綠化

【부산】 낙동강 상류의 [illegible] 와 경상남북량도가 강유역 七백리 제방의 발원지인 에 황폐한 산야가 방지의 방법으로 대사방계가 절대하게 필요 획을 세우고 총비 二천八백만원 로 노여잇어 해마다 十년의 사업을 들여 낙동강사 마다 강우에는 방사 사업을 하고저 경남도에 유역주민 三백 는 도내 四만八천정보의 황폐임야 만여명이 참 를 특히 시급 지정으로 대정十년 담한 수재를입 에 [illegible] 으로 야 三정부의사 어 그참생활이 방공사를 거창군 협력면(居昌郡 극도로 궁박하 月川面)에 시행하기로 거하는것 여저 남북반수 금번 十년계획의 공식을 최초사 동지의안주지를 방면사지인 동시에 개최하기로하 찾어가는수가수 고 지난三일에 경남도내유력자와 천수만명을헤하 총독부 경북도 등에서 三백여명이 참집하야 성대한 기공식을거행하엿다。

경남에서 가장 황폐산림이 만흔곳은 협천(陜川)과 거창(居昌) 양군으로 하천마다 [illegible] 를들지못할만치 심혹하게 황폐된황새의 산마를 볼뿐인데 이황새산을 록화의산으로 전화하야 표상나 [illegible] 의 안을 완전한 옥토로만들어 닷는것이 시급한일이겟는데 금번의 사방계획은 사방계획뿐이니라 공민의 [illegible] 의미노가 미되어잇으므로 치산치수의 근본정책에 대한 기대를가지게되엿다한다。

荒廢된慶南連山 陜川郡의一部

竊盜追擊逮捕

【공주】 본적을 공주군 양호면 모촌리(輸山郡村面東村里)에본 김치서(金致石)이라는 자는 지난 三일 오후九시경에 공주군 탄천면남산리(公州郡灘川面南山里) 김정열(金貞烈)씨집에 침입하야 절도질을하려다가 마침 그집주인 김정열이가 이웃집 자기방에서 [illegible] 가 밥을 사나도라와서 보니 [illegible] 에서 인기척이잇으니 살펴보라하 [illegible] 으로 잡으라 [illegible] 어보니 과연 전기 김치서이가 남을넘어 도주하는것을 보고 추격하여 업어올 쫓아간즉 도적은 놀래서 [illegible] 며 반항하다가 피신하여 숨어잇는것을 김정열은 고함을치며 추격하야 남자경찰관 수재소로 호송하여 방공주경찰서에서 모나시 여죄가없을가하여 엄중한취조를 하는중이라고한다。

自作農七萬六千에 小作農十六萬七千

소작、서이자는 해마다증가

寒心한慶北道의農村

작十년만의 경북도내의 인구가 一、四六九、一〇一인중 그의 직업별로 보면

職業別	戶數	人口
農業	三六九、一〇四	一、[illegible]
商業及交通業	三六、〇六八	[illegible]
公務及自由業	一六、〇八八	[illegible]
漁業	[illegible]	[illegible]
工業	[illegible]	[illegible]
其他	[illegible]	[illegible]
無職	[illegible]	[illegible]

전년에비하야 농업호는 [illegible] 호의 四천九백十八인이 증가되엿다 해마다 무식、실업자가 증가되어가는것이라 한다。

그외간이 본도 인구의 八할이상을 점령한 농민으로 세별하면

自作農	[illegible]
自作兼小作	[illegible]
小作	[illegible]
農業被傭人	[illegible]

이와간이 소작인이 가장만흔수를 점하고잇서며 해마다 증가해가는 현상이라고 한다。

蔚山郡下서도 五十戶移民

虎溪驛은이로雜踏

【울산】 울산군 농회(蔚山郡農會)에서 관할 만주이민 모집을한바 一백七十호의 신청이 잇엇는데 그중에서 五十호를 선발하야 이민에게 주어서는 이미 부락을 짓고 지난 三일 울산역을 떠나 [illegible] 명현성은 넘쳣는데 이날 사람이 만흔 농민이 [illegible] 호계역(虎溪驛)에서 출발하야 울산역을 거쳐 [illegible] 에도 수백명의 [illegible] 한인이 잇어가니와 금년에도 순히 폐회하엿다고 한다。

盛況裏에終了

禮山一三大會

【마산】 본보마산 지국주최 시대가수요상점 후원인 세계명곡레코드 콘서트 演奏會는 三일 오후八시 공락관(共樂館)에서 거행한바 정각전에 벌서 장내는 입추의여지가 없이 대혼잡을 이루어 동十시三十분 대성황리에 무사히 폐회하엿다고 한다。

四萬圓經費로 莞島道路改修

【완도】 완도군완도면 莞島郡莞島面에서는 읍내와 대신리 大新里、간과 망석리 望石里 사이의 도로를 개수하기로 [illegible] 부터 계획을 세웟는대 그놈안주 무로사 인하야 승부되엿다가 이번에 공사에 착수하야 공사비는 四만여원이 [illegible] 되는 대 부역과 [illegible] 으로 충수하기로 되엿다한다。

子息없는것을奇貨 老人을誘引騙財

유부녀를 따부라고 속이시

一團八名水原署檢擧

【수원】 시골 노인을 유인하야 나의 유부녀와 강제로 결혼시기어 그 [illegible] 을 빼서버리려다가 필경 경찰에 피소된 一단八명의 복란배가 잇다 작년 음八월경 수원읍 신풍리 水原邑新豐里 二五八번지 박모 (朴某)와 처 유씨 (柳氏)三인이 [illegible] 을 비끼로 [illegible] 안되어 용인군 수지면 [illegible] 里 [illegible] 二五八 [illegible] 이 자식없는것을 가화로 전기 유가흥면 영덕리 [illegible] 이란 노인은 시키고서 그 [illegible] 이나 [illegible] 을 시키어 [illegible] 三인간이나 몽갓을 [illegible] 결혼 [illegible] 시킨후에는 무리한 소개로와 비용을 청구하므로 전기 어노인은 그집을 도망하야 집으로 도라와 어거우 위협하야 [illegible] 면 [illegible] 에 세속 하야 [illegible] 하므로 할수없이 [illegible] 에 [illegible] 하야 [illegible] 하야 이 [illegible] 에까지 수사하던 [illegible] 을 다시 [illegible] 계속 조사하며 당국에서는 방금 그사실을 조사하는 중이라고 한다。

家庭不和? 女訓導自殺

【봉화】 봉화군 춘양공보교 (奉化郡春陽公普校) 현직여교원 조복경(趙福卿) (二三)은 지난 三일 오전十시경에 자기침실에서 독약을 마시고 죽엇는대 일반여론은 가정불화가 원인인듯 하다 한다。

맘성만튼浦項上水道 兄山江으로遂變更

下村浦項邑長이上道하야內定

興海住民의反對奏效

【대구】 포항(浦項)의 상수도를 영일군흥해 (迎日郡興海)에 설치하려는 당국의 계획에 흥해의 주민 만여명의 생활을위협하는중대문제라하야 면민천여명의 연서로 대지하여 경북도당국에 수차 진정하고 다시총독부에까지 진정하는등 장구한시일을 두고시끄러 운 문제를이르켜오더바로 누차보도하엿거니와 당국에서도 다른곳으로 적당한수원지를 심사하고잇던중 지난四일 하존(下村)포항읍장이 상도하야 도당국과 협의한 결과 형산강(兄山江)에 수원지를 [illegible] 하기로 내정하엿다 한다。

大邱府의人口減少

◇細窮民의滿洲移住關係?

【대구】 피폐해가는농촌에서도 시로몰려온 유리민들은 도시의 부세하의 발전으로 발미암아 또다시세궁민의 오막살이는 시외로 박촌밖으로 쫓겨나는 현상을내이고 잇다

경북도 삭十년만현재의 호구조사의결과에 의하면 도내총인구는

戶數		四六四、七一四
男		一二四八、七四二
女		[illegible]
合計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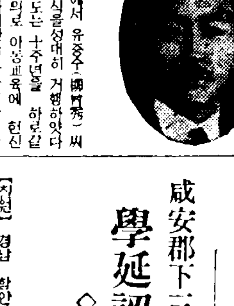
으로 이 설종전년도에 비하면오수로 一만五천六백四十九호 인구로는 五만二천백四十一인이 증가되엿다는데 그가운대 가장격증된것은 상주(尙州)군의 一만二천백十오가 수위로되어 잇다고 한다。

이에하나의 기현상을 보이는것은 대구부의 一천八백 四十一인과 청송(靑松)군의 一백二인의 감소를내인것인데 그원인은 도시의 피폐해가는 중소상공을 탄병하는대 자본의 빼화전이나 큰공장이 나타나는것과 시가정리의 규축에 의하야 부내에서는 초가가 (草家)를 세우지못하는 관계로 세궁민이시외로 몰려나가는 것이라하며 특히 청송은 한재、냉해를 연부터 어지어온결과 남、북만주의 이주민이 대량으로 나게된 관계이라고 한다。

發展途上에奇現象演出

十週年勤續敎員 槐山公普褒彰

【괴산】 지난 五일 오전十二시에 괴산공보 (槐山公普校) 훈도 황세연(黃世淵) 씨의 근속十주년기념식을 동교 하부형회주최로 동교강당에서 유종수(柳宗秀)씨사회하에 식을성대히 거행하엿다는데 황훈도는 十주년을 하로같이 성심성의로 아동교육에 헌신적노력을 하여왓슴으로 일반 부형은 그공로를 찬송하음 마지안는다고 한다。 【사진은황훈도】



靈光郡消煙高 十一萬餘圓

【영광】 전남영광(靈光)지방에서는 작년도 연초소비고(煙草消費高)가 十二만四천九백五원九十三전에 달한바 전년도에 비하야 실로 一천三백五十一원 七十六전의증가를 보게되엇는데 영광읍수 一만六천 四백八十六호에 대하야 총인구 八만五천三백十九인에 대한소비고는 약七원 十五전에 해당하고잇다한다 이에 전기소비액은 영광군 十一면十一面에대한 금년도의 총경비 六만五천六백六十五원의 약배액이며 호세부가금(戶稅附加金) 二만五천二백五十二원 七十一전에 대하야 八배에달하고 잇음으로 一년동안연초소비고의 반액만가지고라도 一년간의 전군十一면에 대한경비를 충당할수잇는바이며 소비액의三분의 一만 가진다고하면 영암지방에 중학(中學)하나는 무력이 세우게 될것이라한다

工事費卅六萬圓으로 浦項港의大築港

완성하면 六백톤급 선박횡착

今月中에着工豫定

【포항】 다년현안의 포항대축항은 드디여 실현을 보게되어 제一기공사비 三十六만원으로 四월중에 착공하리라는데 동축항이 완성되는 날이면 五、六백톤급의 상선이 안벽(岸壁)에 횡착하리라 한다。

星州鹿子絞競技

【성주】 조선농가의여자부업으로서오직경북도의특산으로 이라는 과언이 아닌만큼된 녹자교(鹿子絞)는 당업자간의 이익없는 경쟁으로 말미암아 쇠퇴하여가나 성주(星州)에는 당지유소재인 부업장려사(副業獎勵社)사원등의 고심한 장려하에서 일년간 공입(工賃)이 三만원이란 끔직한 수자를 나타내게된바 지난 三월말일 오후三시반에연합(月山)서남(船南)양면사무소에서 각각 녹자교 경기회(鹿子絞競技會)를 열게된바 무려 四百명공녀가 몰려와 경기는대성황리에 당일오후五시에 마치엿다 한다。

邑稅倍以上增加

金海邑會原案通過

【김해】 김해읍회(金海邑會)는 지난二十八일부터 三일간을 계속하야 읍회의실에서 개최하엿는데 의안은 소화十一년도 세입출예산안과 十一개의안을 토의중 소화十一년도예산액 九만五백八원에 읍세만이 五만一천十七원 이라는데 이를 작년도에비하야 二만六천七十五원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통과되엿다 가옥세부가세 부동산취득세부가세 인시특별세등 三종세가 증세되엿으며 기타토의안은 一사천리로 원안토의한후 지난 三十일 하오六시에 폐회하엿다한다。

仁川市內에 僞造爲替流行

【인천】 인천(仁川)에는 근일위조위체(爲替)소절수(小切手)가 성행한다한다。

지난二일은행시간이 지난후결예 부내 나무리(金谷里)우영상회(友榮商館)에 웨신사가 二十원짜리위체를 갖고와 一원어치의물품을 사가지고 남은十九원은 현금으로 갖어갓는데 이것이 四일후편소에가 위조품이라는것이 판명되엇다하며 또부내지나정 (支那町)지룡룡(林興東)이 발인이된二백원짜리가 [illegible] 한다。

密陽名唱大會

本報支局後援

【밀양】 경남 밀양에기생번(密陽妓生番)에서는 조선고래의 음악을장려주양한다는 취지하에 전조선각전번 예기대표선발명창 대회를 개최코저 수개월전부터 준비하여오든중 수일전에 허가되엿으므로 본보지국후원으로 오는四월十七、十八、十九、三일간을 작정하고 장소는 밀양천번으로정하고 一등상 五十원으로 부터 각등에 상당한상품이 잇다는데전선각 권번대표명창은 만이 참가하기를 바란다고 한다。

永川脚戱大會

【영천】 조선소방협회 영천지부발회식(朝鮮消防協會永川支部發會式)을오는十一일 경북도내소방조두 전부 초대하고 성대히 거행하는동시에 여흥으로 각희대회(脚戱大會)를 十二、十三 양일간 개최하게되엿다고 한다。

鳥致院映畵의밤

【조치원】 본보 조치원지국에서는 독자를위안하기 위하야 영화의밤을 오는 十四일에 조치원길야정회관 (吉野町) 日出館에서 개최하리라는바 영화는세계의 명화인 「왕중왕」(王中王)과 조선영화의 하나인 「방아타령」을 공개하리라는바 일반 독자는 만흔기대를 가지고잇다한다。

三郡五自動車部合同

株式會社組織

임금도二할을감하야 四月一日부터實施

【해남】 삼군(三郡)五자동차부가 합동하여 주식회사를조직하엿다는데 해남(海南)금성、남일 외목(金城、南一、瀛木) 영암(靈岩) 하합(河合)보성(寶城)촌상(村上) 五자동차부가 합동하여 자금 二十만원으로 대흥자동차주식회사 (大興自動車株式會社)를 조직하여 동회사를 해남에두고 四월一일부터 영업개시를 하엿다는데임금도 二할을 감하야리라하며 역원은다음과갇다 한다。

▲取締役社長瀨木虎吉▲專務取締役一▲常務金宗鉉、河合吉兵衛、村上正二▲監査役鄭世黎

沒書

▲靈光郡內十個公普의 入學率을 보면 收容人員 五百五十五名에 志願千四百二十六名으로 入學超過가 三分의二。

●島致院 豐市朴氏(二二)는繼母와不和로 飮藥自殺。

●忠南 따뜻한 이地方에도 三日에는 白雪이 紛紛。

●南海 西面里牛大氏(二〇)이란 婦女는 煩悶되어自殺

消息

◇李成夾氏(扶安公普校訓導)去二日高敞公普校轉勤人事次扶安交局來訪

◇鳥崎(扶安公普校訓導)去一日同上

◇三個島八郎氏(茁浦警察署長)去二日扶安警察署轉勤人事次同上

◇福田繁雄氏(同上)同上

◇金泰坤氏(本報茁浦分局長)去三月卅日亭子自宅에서逝世叩慰

密林 (125)

金末峯作 鄭玄雄畵

봄 三

인에는 상만이가 가까이 오는것을 기뿔러 나란이 전차길까지 오면서도 한마디도 입밖에 내지 안엇다。

안전지대에는 오날이 공휴일인 만큼 전차를 기다리는사람들로 빽하다。

「왜 어디가 편치 안으세요?」

상만이는 인애에게말을 건넛다

「언제 조금만잇으면 인애없난부터 곤잘 단니실걸」 이

인애는 벌숙이 말을 해노코 속으로 후회를 하엿다。

「무슨뜻이야 질투하는것을 로 깔보이고」

인애는 이런생각을하자 희도라서서 다라나고 싶도록 불쾌한 생각으로 가슴이 가득하여젓다。

「아하하하 통이만큼는지도 몰르지요 하지만 우리만간다는것이 저찔것이야 없지안어요?」

「네?」

상만은 예리한 물건에 가슴을 찔린때처럼 한참동안 말문이 막혓다。

「당신 지금이라도 자경씨 갈은 돈잇는집 딸과혼인하고 싶지안아요? 호호호」

「아 ー 니 여보 인애씨!」

상만은 목소리를 가다듬어 부르 섯벗다

「오늘 놀리는 말이요? 어떠케 이로뵌다는 말이요」

「호호호 왜요 틀렷서요?」

상만은 인애가 자기와 깐속을 드러다 보듯이 뚝뚝쏘아 버리는 말이 바늘끗처럼 양심에 찌리여 그러나 상만은 어이가 없는듯이

「오 ー 인애씨가 어데 돈잇는집 아들에게서 청혼을 받은게로구면요 하하하」

「아 ー 니 여영 별여슴이야요 ?」

「피장 파장이니요 허허하 여보인애씨! 쓸데없는 외심은 인애씨의 어엽분 딸짝얼굴을 죽어는 법이업니다 건이……」

저편으로 전차가 하영들인듯사 각모를쓴 청년이 뻬엿이 내려오기 시작하엿다

「정말 나도 어디부자집 아들이 라도 하나골라볼가바 호호」

「그럽시다 그러면 나는 당신말대로 자경씨와 결혼을하고……」

「피ー 결혼만 혓다보지……」

「하하하 만약에 결혼을 하면 어쩌테요 네인애씨?」

하고 상만은 만에하나이라도그럴리가 없다는듯이 그연장적는 으로 인애를 흘겨보는것이다

「결혼하면 장사시라고 거도해 드리죠 정말입니다 난당신만에 복되신다면 정말예요」

약간 떨려나오는 인애의 음성 속에는 속이지안는 진심이 숨어잇섯다。

상만은 속으로

「아ー 순정、이진심을 할감과 바꾸다?」

생각을 하고 그경솔부인(不言)하려는듯이 흐자고개를 흔들엇다

「四月五日 附가시판十一오를 「봄 六日附 봄一오를 「봄二」의

「안 요」

「그럼우리 좀걷기로 합시다」

「온실엔 웬갓치안가서서요?」

「누구하고 자경씨하고요?」

인애는 인도(人道)로 올라서며

「몰론이죠」

「자경씨는 인애가 안가니까 재미가없어서 관둔다는거야요」

대답을하고 상만은 인애와 보조를 갈이하려고 되도록 거름을 자조 옮겻다。

「이 처녀가 기어코 알아채리는 구나」

하고 생각을 하엿다 무사람은 잠잠한채로 런동 광복으로 들어섯다

「一」

인애는 자자코 상만의 보기조케 웃는소손 코를 치어다 보앗다。

「내맘속에 일점의 티가없고 또 자경씨에서 양혼한 사람이잇지 안어요?」

「…」

난 정말 의외이예요 인애씨가 그러케 의심을 가지는것이라 고는 생각지못햇는걸요」

두사람은 어느듯 나즈막한 출아 담상달상 자라고잇는 나산비탈로 올라서섯다。

따스한봄날에다 하 – 얏케 경사 (일흔)진모래언덕에는 한日의햇

제 「이 정말 그러케도 안습니다만 남

「…그럼자도 안습니다만 남이본다면……」

「남이 본다면?」

「남이 본다면 어느편이 결합상만씨와 악혼한사람인지 알겟서요? 호호호」

인애는 이왕내친거름이라 앞을통로 삼신하게 도저게되고 저도 질에처럼 말을 도저게되고 지금까지 맘속에 숨어잇든 불평을 토해버리고 말엇다。

상만은 잡고잇든 숄가지를 탁 꺾 인애앞으로 두어거름 떠어섯다。

「만약에 한갑자기 젊은 녀성을 올나리고 가는것을볼때 가령그 하나이 그의안해이요 다른하나 이 그의누이동생이 된다면 그 래 정보는사람이 누가 동생이고 누가 안해라는것을 쉽게알 아낼수가 잇을까요」

「그야 알수잇을것 같애요」

「어떠케?」

「표정을 보고 알지요」

상만은 속으로 뚝끔하엿으나 점 잔 고개를 흔들며

「노ー 노ー 그럴수없지요 단연 코 그럴수없지요 자ー우리 그 런쓸데한 이야기는 그만두고 다른이야기나 합시다」

「싫어요 난 지금 이 이야기가 아주 잘나지안어서요」

인애는 발딱 이러섯다 상만의 발앞으로 도라가서 그의얼굴을정 바로 드려다 보면서

「바로 말해보서요 당신 나와약 혼한것 후회 하지안으세요?」

「지 쭈른빛이 떠돌고 잇는 점더우 에 인애는 손수건을 펴노코 주저 앉엇다。

「인애씨!」

하고 불러노코

상이 적면하시다。

바싹 말려거는 하엿으나 어데인

北部版

地方論壇
學級增設問題
五老 一記者

現下 朝鮮의 敎育問題는 實로 解決치안흐면 안될 重大한 社會問題의 하나로되어 急速히 解決을 要求하여오고 또 地方에따라서는 敎育機關의 擴充 入學難打開의 熱烈한 부르지즘이 늘어가고 잇거니와 五老市에 잇어서도 (■)個校의 學級增設運動은 過去 數年을두고 꾸준히 繼續하여왓으나 아직도 이러타할 成果를 보지못하고잇다。

그러므로 今年에는 學齡兒童八十名에對하야 志願者는 約三倍나 되는 二百名을 超過하기 二十一名이 되엇으니 그中三分一은 그만 서름다운눈물을 먹음고 어린가슴을 어루만지며 도라가지안흘수 없게되엇으니 그들 百四十餘名의 末來는 어디로 갈것인가? 가슴조리는 學父兄은 어떠케 할것인가? 배움의 機會를 잃어버린 그들을 생각한다면 實로 눈물겨운 일이라 하지안을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悲慘한現象이 今年에만 잇을것이 아니오 將來로 年復年 더하여갈것이니 實로 急迫한情勢에 直面하여잇다。그러에도 不拘하고 아직 學級增設運動이 아무런效果도 보지못하엿다는것은 五老人士들의 熱과 誠이 不足한所致가아니면 運動方法이 徹底치못한 까닭이 아닌가?

校舍로는 現在物件을 若干만 修理하면 充分한것이오 人件費와 其他經費는 當局에서 負擔할수도 잇을것이니 그 財源의 捻出에 關心할것은 없을것이다。이러케 學級이라도 增設된다면 學童은 多少間 緩和되리라고 생각된다。

五老有志諸氏여! 旣往 이學級增設運動에 손발을맞추고 나섯던것이라면 有終의美를 거두기爲하야 誠과熱을 한곳에 모아 初志의 貫徹에 힘쓸것이며 學校나 郡當局은 勿論 學務委員들도 이運動의 目的達成에 協力하야 急速한 實現을보게 하기를 바라는바이다。

自動車部에 一言
長湍 一記者

近來 長湍에서는 企業에 對한 獨占的 横暴는 各面에 普遍하여 날로 甚하여 이로 因한 弊害는 實로 莫大한바로 서 그에 對한 社會的 輿論도 놉아가는것이 事實이다。近日 長湍某自動車營業主의 橫暴는 資力人士들의 非難의 的이 되어 잇는바이다。그는 獨步的地位를 방패로 제멋대로 運賃을 좌우하며 乘客의 便宜를 無視한다 하니 업경난 高價의 賃金을 請求하므로써 賃金 ■■을 지키지도 안코 싸운 뒤에 잇은 무례한 態度를 自取함은 不信的 橫暴이다。이에 對하여는 마땅히 當局의 取締가 잇어야할것은 勿論이나 不過二三의 貪慾한 經營者로부터 이를 忘却하고 그같이 橫暴를 자행함이 敎育보다 더 必要한 이 아닌가? 이에 對하야 當局은 自動車營業主의 反省을 促하는바이다。

債魔의 奴隷된 東海漁民!

每人負債五百圓에 年利子만 六十餘萬圓
자기자금은 요으타 四만八천원 數罟는 어느날에 벗나?

【함흥】 농산촌에서 생업을 지속하는이들이 조업하는 四천六백七十二명의 어업조합원이 지고있는 부채를 조사한바 一三백二十四만 八천四백 六十四원으로 매인평균 五백一원七十八전에 달하는터이니 어느날에나 다소라도 부채를 청산하고 그만큼 부채를 지지안흘 사업을 지속할것인가? 라마는 언제나 다시 그부채와 차입처 명을 살펴보면

▲漁組及水産組合에서 一、二三九、〇五四圓▲金組에서 八千六四〇圓 ▲銀行會社에서 一五八、三二〇圓▲漁撈業者로부터 三五、〇〇〇圓▲問屋으로부터 五四七十八圓▲個人에게서 十五八、五七二圓▲其他二六、七〇圓이상과 같은것으로 그 이사에 한 이자는 최고六할 최하 一할二푼 평균一할六푼이라에 해당하니 이오 그 이자만 해도 六十만여원에 달하는 터이니 어찌 부채의 노예로 허덕인다고 하지 안흐랴? 이 더구나 자기 자금으로 운용하는것은 겨우 四만八천六백八十원밧게 업다고 하니 참으로 놀랄만한 봉세수자를 이 시하하고 업는것이니 남만 비어하고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마당의 이들의 부채를 정리하야 그들이 가비웁게 하는 대책은 시급히 세우지 안흐면 안되리라 한다。

없이 당하거리고 빚피잇다는 그들 빈궁살리는 망망대해의 고달픈 생활을 지속하는 어부들에게 물러씨운 채권의 마수는 그물로하여금 벗어볼날을 기약할수없는 부채의 노예(奴隸)로 얽매어두고잇다。작년 합덕재로 합남동해안의어

七郡校豫算額
▲田四六四、町步▲畓一、二八七七▲垈五四▲池沼一四一七▲雜種地六、四八六▲林野四、八五▲墳墓一、八八▲道路二、六九〇▲水道用地五▲用地▲河川七、五八八▲溝渠四、六九八▲鐵道八、

五四八▲堤防四〇一▲城壯三▲鐵道線路八九三

西朝鮮의 墓地面積 萬二千五百町步
公園은 기우 五十정보미만
適當한 墓地改善이 急務

【평양】 평양세무감독국(平壤稅務監督局) 최근 조사에 의하면 평남 평북 황해도 三도에 공한 면적은 관하 三도에 국유림(國有林)과 민유림(民有林)의 墓地 一만二천五백五十정보이나 이 중에 공원 하천부의 점유 면적이 대부분이어서 조선의 묘지사용이 얼마나 넓은면적을 점령하고 잇음을 알 수 잇다。전답 임야 모지 공원 하천등의 총면적은 국유지 민유지를 합하야 四백三十五만三천五백四十八정보이 하고 잇다 한다。종별로 본 면적은 다음과 같거니와 정보 대의 묘 을 알수 잇다 한다。

三萬五千圓
만성부족금은 五천원가소
經營難의 奉天初等校에

【봉천】 만철(滿鐵)에서 만철 소재부 經營府에 부조금이 미ᄃ하여 차년도에 경영난에 빠져 한동안 문제중에 잇든 봉천조선인초등학교 十一년도 예산안은 지난二일 오후 시 봉천거류민회 조선인의원회를 개최하고 예산안에 대하야 심의한 결과 본년도에 이 성립되엿다 하는데 전년도에 비하면 세입만 각 총부부담금 은 一천 백八十원이 증가되고 일시에 총부부와 만철의 보조금은 四천八백五十원이 감소하고 한나 세입세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歲入之部

總督府補助金	一六、五六〇圓
滿鐵同	五、二〇〇圓
民會同	一〇、〇〇〇圓
民間醵出補助金	三、〇〇〇圓
授業料	四七、六〇〇圓
新收入金	一、八〇〇圓
合計金	三五、〇六〇圓

歲出之部

學校組合事務費	四、八〇〇圓
北市場學校補助	二、三〇〇圓
英守寮學校補助	八、〇三〇圓
皇家荒學校	四、五八六圓
諸木鋪學校	四、六二圓
公太堡學校	三、九七三圓
孫家臺學校	四、七六四圓
敎務子學校	三、八〇〇圓
積立金	一、五二五圓
昨年度償還額	二、〇四七圓
合計金	三五、〇六〇圓

봄비은 벗가지 (高原所見)

洪原郡面廢合 十一面을 七面으로

【홍원】 홍원(洪原)군에서는 면폐지구역변경(面廢止區域變更)문제는 이미 전긔한바와 같거니와 원래 홍원군은 원래 十一면으로 되어잇는데 그중에 재정빈약으로 행정사무에 막대한 지장이 잇어 전기 면폐지구역변경문제가 불원에 착착 진행중이든바 지난 四일에 시행키로 발표되엇다는데 폐지구역을 다음과 같다。

面廢止名稱及區域變更▲洪原面(雲■面)▲景雲面(雲浦面)▲南浦面(平浦面、併合面)▲龍川面(龍川面、併合面)▲保賢面(保賢面、併合面)▲雲鶴面(鶴鳴面、雲鶴面、併合面)

郵物塔載튜럭墜落 運轉手等四名重輕傷
수백척되는 지점에서 떨어지

【후창】 지난一일 밤 시밤중 후창 오후비령(厚昌伍仇徘嶺)에 잇는 六천여 마릉되는 절벽에 굴러 떨어졋다。봉흥(奉興)서 우편물을 싣고 떠난 평안자동차 상회(平安自動車商會) 『트러크』가 험한 길을 겨우 달려서 밤十一시반에 후창읍(厚昌邑)서 六키로반쯤 되는 오우비령에 올라오든중 산(山)에서 돌짝같은 바위가 도로에 굴러 나려와 잇으므로 운전수 최재향(崔載鄕)은 그곳에서 조금 나려와서 문 등상의 도 후창영업소(厚昌營業所) 전화하야 용급한 것을 알린 후에 운전수 인명업(任明燁)을 명하야 운전시켜 인부二인 조수(助手)一인 외 봉흥(奉興)서 오든 전기운전수등을 태우고 현장에 이르러 바위를 옮기려 보앗으나 도저히 될수가 없어 그냥 이편차에 우편물을 옮겨실고 후창을 향하야 험한 산길에 올라오든 도중 서의 작대기에 왓을때에 『헤드라이트』의 『퓨ー즈』가 끄어져 불이 꺼지자 정거를 하는 순간 버람 길이 무어저서 『바퀴』가 떠러지니 차체가 기우러지자 뒤에 탓든 조수一인이 떠여나리고는 그냥 수백척되는 절벽에 굴러 떠러저 탓든 사람들이 차에서 쓸어 지나오고 차는 그냥 굴러서 압록강(鴨綠江)에까지 굴러 나려가 전파되고 운전하든 임명은 흉부를 울리우고 가치 탓든 운전수최재향(崔載鄕)은 각부(脚部)와 안부(顔部)를 경상하고 도로수선자든 인부 지봉화(池奉華) 안종욱(安中玉)이 각부등에 중상을입고 인부一인이 경상을 당하엿는데 병원으로 만에의 하면 인명에는 관계없다고 하며 추락된 차에 실은 모씨의 이사짐이 전부파손되엿다는데 추락된 장이 협악한데 비하야 인명의 해가 없음은 천행이라고들 말하고 잇다。

厚昌伍仇徘嶺의 慘事

羅南新春漫談 廿一日演藝館서

【나남】 조선중앙 본봉양지국 주최로 오는 二十一일 오후八시부터 나남 연예관(演藝館)에서 신춘만담회(新春漫談會)를 개최하야 본의 정성가 가득찬 하로밤을 명랑한 마음으로 지내리라는바 이 만담회에 출연할 분은 신불출(申不出)

公益事業에 六千圓喜捨
新溪趙女史의 美擧

【신막】 황해도 신계읍내 향교리(新溪邑內鄕校里)조수녀(趙淑女(七一)여사는 젊어서 과부가 되어 극빈한 생활을 하면서도 근검저축한 재산이 적지 안흐므로 당지에 스교의 사유지에 목사주택 건축비 三백五十원과 밭四천평 시가六천원을 공익사업에 쓰라고 당지에 수교회로 지난 四일오전十시 이 기부하엿다하며 이에 감사의 생각한 당지 유지제씨는 이를 영원히 기념코저 기념비를 건설하고 지난 四일오전十시 에 당지에수교당에서 포창식을 거행하엿다 한다。

雇員九名募集에 百餘名應募

【박천】 면고원(面雇員) 九명모집에 백여명 지원자가 잇엇는데 그중에는 대마나온사람과 중하나 온사람들도 일보던곳이 대정이 잇어서 방사지에 나온 면상의 학급에대가 밝혀진 도 잇다 하는데 그중에는 대부분 시험성적이 좋은 사람이 잇엇고 卅세가 넘은 사람도 잇엇다 한다。

不出)과 신자인(申紗仁)이 방수인(方笑人)등 三씨인데 이날 성황을 예기하는 당지국에서는 목하 그 준비에 분망중이라고 한다。

長淵幼稚園認可

【장연】 황해도 장연읍(長淵邑)에서는 유치보육기관이 부족함을 느낀 읍

羅南人의 食慾
소、도야지 도살수二천五백여두 價格은 八萬八千餘圓

【나남】 최근 예년에 비하야 비약적으로 약진해 가는 나남의 면모를 해부하야 본다면 작년一년간 나남시민의 뱃속에 희생된 소(牛)와 도야지(豚)의 도살수는 소는 八백八수로 그 가격이 六만九백四十一원이고 도야지는 一천七백二十두로 그가격이 二만七천四백五十五원이라는 거액에 달하다고 한다。

學父兄會蹶起 學級增設運動

【영흥】 어디를 물론하고 금춘의 입학난은 예년보다도 一층심하야 실로 그절정에 달하얏다고 하겟는데 그중에도 영흥 공보교(永興公普)의 입학경쟁률은 一층격심하야 百二十명 정원에 一약三백수十명에 달하얏으므로 이에 상에 감하야 지난 四일의 통교부형회에서는 학급증설 운동을 이르키기로 전회 일치가결 하엿다는데 이때문에 종래 계획해오든 운동장 확장은 일단중지하고 그 예산을 전기 학급증설에 따르는 기금에 편입키로 하엿으며 불론 수입간에열리게될 여의회의 입안에 외하야 학급증설 기금모집에착수할터이라고 하는데 일반은 그것의 실현을 매우 갈망하고잇다고한다

奉天初等校異動

【봉천】 봉천(奉天)공립 보통학교장 중앙관(中■)씨는 公太堡학교장으로 孫家荒학교장 宋壽承氏는 公太堡학교장으로 公太堡학교장 李國交氏는 東明學校校長으로 北市學校首席 金鐵顔氏는 孫家荒學校校長으로 公太堡校敎員 柳文永氏는 孫家荒學校敎員으로 孫家荒學校敎員 金貞秀氏依願辭職其後任으로 李允植氏가 赴任

作權無理移動
施肥코 營農完了에
벌서 二十六건이나 접수되어
高原에도 小作爭議

【고원】 거름을 내고 추경준비를 마친 농토에 대한 소작권을 무리탈하야 쇠잔해 가는 작인을 시달리게 하는 악덕지주가 고원(高原) 농촌에도 발호하기 시작 한다고 한다。

금년 一월이후 三월 말일까지에 고원군 소작위원회에 탄원해 온 소작쟁의 그건수는 벌서 二十六건이며 三월중에만도 十二건에 달하야 답을 거듭할수록 격증의 취세를 보이고 잇는데 쟁의의 원인은 매매관계로 지주가 변동되는데서 생기는 전작인의 무시와 또는 정조제(定租制)를 타조제(打租制)로 변경한등 관계인데 부규의 책임은 전주가 지주의 횡포에 잇다고 한다。

그런데 전기와 같이 쟁의를 이르키고 잇는 토지에는 작인들이 벌서 거름도 내어 노코 모든준비가 완료한것이 대부분 이라는 바 하엿다。

電氣問題解決
問題中에잇든

【벽동】 서선전기회사와 벽동군 의 사이에 전주세가 문제로 해결을 얻지못하고 잇다함은 이미보도 하엿거니와 지난二일 좌기의 조건하에 원만히 해결되엿다고한다。

一、전주세에는 종전과같이 매주에一원그대로 一、벽동면소에는 十년간 무료로 전기를제공 一、명년부터 三年간 一、벽동지역 一명년부터 전주세감하하기로

對 地主 郡內面上石灘里 金某 作人 下端面南陽里 張南塡 對 地主 郡內面上面興里 張某 作人 上山面興讃里 裵在道

總戶數五千에 借家만三千
借家의 都市 兼二浦

【겸이포】 요지음 당국의 조사에 의하면 겸이포읍(兼二浦邑) 전세대호수는 五천二백七十호로 그중 세십사리 세대호수가 三천五호로 약三분지二가 셋집살림을하고 잇는 현상으로 이는 겸이포읍민의 경제상태를 말하고 잇는 한편 차가인 협소함을 시급히 실현할 필요가 잇다는 점을 말하고 잇다。

신에 중상을 당하야 방금 재령제중병원(載寧濟衆病院)에 입원치료중 이라는데 생명이 위독하다고한다

一日早日實施
洪原郡面廢合

【홍원】 함남 홍원군(洪原郡)은 원래 十一개면이든바 금번 당국의 면폐합에 대하야 여좌히 七개면이 되엇다 한다。

前洪原面을 洪原面이라 名稱하고 前雲浦面內面中下中의 上中里東一里 景浦面을 景浦面 雲鶴面 豊西里를 洪原面에 編入하여 龍雲面과 龍浦面을 合하야 雲鶴面이라 名稱하고 前雲浦面 前龍源面을 合하야 前雲面이라 名稱하고 前保賢面 雲鶴面에 編入 前湖南面 前鶴川面을 合하야 龍雲面이라 名稱하고 前保賢面을 合하야 保賢面이라 名稱하고 前龍雲面 龍雲面에 編入하엿다。

前途洋洋한 德川私立學校

【덕천】 평남 평원군 덕산면 신묘리 명학교 (德山面 ■■里 ■明學校)는 명년부터 창립一주년을 마지하엿는바 그학교는 원래 동리청년 김국주(金國柱)씨의 꾸준한 노력으로 소화七년 四월一일부터 자기사랑방을 이용하여 생도는 남녀약十명에 불과하엿든 것이 四년이라는 세월을 의로 금년에는 기별이 四十명이 되고 이르는 졸업생을 보게되엇다 하며 지방인사는 불원 단설에 대에 모범청년이라고 칭송이 자자하다 한다。

一生血汗全資產 三百圓을喜捨
改良書堂設立

【미림】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것이아니다。우리도 배워야 산다하여야 근래 교육열이 우리조선을 풍미하야 뜻잇는 재산가들은 사재를 아끼지안코 학교설립에 분주한 이때에 고독단신의 七十노파가 一생근로하여 절용으로 푼푼이 모흔 돈 전액三百원을 희사하야 개량 서당을 설립한 미담이 잇다。재령군장수면 신성리 (載寧郡長壽面新城里) 임도마(林刀馬)(七一)여사는 연래 빈한한 가정에 출생하야 十七세에 출가하야 一남一녀를 생산하고 결혼후 五년만에 남편을사별하고 저빈 분투하여가며 자녀를 양육하든바 가화가 미진하엿든지 자녀 二인도 마자 사망하엿다 한다。이래 천신만고를 겪고 하야 의지할곳없는 고독단신으로 지금 七十一세가 되엇다고 한다。원래 입여사의거주하는 부락은 산간벽지로 보통학교 소재지가 十五리가량이나되어 아동의 통학이 불편하다 뿐 아니라 빈궁한 촌락으로 부락민대다수가 문맹임을 입여사는 심히 통탄하야 부락민에게 필요함을설명하야 자진하야 푼푼이 모흔 돈 三백원을 희사하야 서당을건축하고 한다。부락민에 감사의적이 되엇든 부락민에 감사의적이 되엇든 고 재산가의 몇만원을 회사보다 낫다고 일반의 칭송이 자자하다고한다(사진은 입여사)

寧邊崇德學校
各校入試合格者

男子部 崔永文 金二甲 金昌漢 李■國 金■在 李相■ 柳基萬 車永■ 金大先 李明■ 安尚■ 沈金庸 林永錫 ■玉均 金■國 安泰龍 ■■■ 金■烈 李■■ 高■■ 金在 高■ 吳泰鎬 李用植 李應善 金光■ 李■泰 金應鉉 金泰植 尹壽根 洪承根 ■■■ 河在龍 林■根 白■■ 李■植 ■■■ 金■■

女子部 鄭大一 金■欽 安炳■ 林■德 李■寧 洪承女 ■■子 金■麟 朴東■ 尹愛卿 金孝貞 金■■ 朴■子 李■■ 朴貞子 ■仁■ 李 ■ 金■■ 金■■ 朴■■ 金■■ 石■■ 元鶴姬 朴善■ 朴■明 元善英 金■■ 金■石

消息

◇黃■■氏(■州公立普通學校訓導)◇朴■■(■■公■學校長)◇朴■■氏(文山公普訓導)◇加治木■氏(■■公普校長)◇有村武二氏(咸鏡南道■■)◇吳珠■氏(前女子公普訓導)

鴨綠、長津兩江도 이미解氷을始作
예년보다 十여일이나 일르다고
北國에도宛然한春色

【신갈파】 三월이 다 지나 국경일은 반공일로 조금잡히고 六일 좌각(左■)이 절경되엇으므로 그 의 우울하든 하늘도 봄빛의 명랑을 띄우드니 벌서 압록강(鴨綠江)의 해빙 소식이 들려온다。 一일 합수(合水)부근압록강과 장진강이 녹기 시작하엿는데 작년의 해빙개시는 四월 十五일이엇는데 금년은 작년보다 十여일이 빠른 세음인데 늦게 얼어 거정이든 어름이 이와 같이 빨리 녹아 버리므로 지난 겨울은 북국국경의 겨을다운 찌르는듯한 맛도 살아진 듯 하다。

일은 반공일이므로 조금잡히고 아니잡혀 하로 동안 잡힌소와 도야지는 자그만 큼 一백五十八두 소가 二十두 도야지 一백三十八두는 온전히 조상의 무덤앞에노 힐것이므로 저세상의 조상들은 배가불를것이나(?) 그대문에 공연히 만혼소와 도야지는 희천에 가고만세음이다。

이를 돈으로환산하면 소한마리에 一백원치고 一천원 도야지한마리에 十五원치고 二천여원 이때으로 도합四천여원인데 이때문에 부의 세입수입도 보통일의 十四、五원에서 四十二원五十전도세수입은五十원에서 一백九十二원五十전으로 뛰어올라갓는데 이런날이 매일계속되면 부와 도는 조하하겟지마는뭇견딜것은 제일로 소와 도야지일 것이다。

寒食前日屠殺數 百五十餘頭

【신의주】 한식(寒食)은 전세상조상의 잔치날인 동시에 소와 도야지의 큰 액일(厄日)이라 신의주도수장에서 보통날에 잡히는 가련한소와 도야지수는 평균二十두이엇는데 한식을앞둔四일(五

羅南署卽決處分 七百八十四件 人數는八百七十名

【나남】 작년一년간 나남경찰서(羅南警察署)에서 즉결처분(卽決處分)한 통계를 본다면 건수로 七백八十四건이고 인수는 八백七十명에 달한다는바 예년에 비한다면 二할가량이나 증가되엇는바 그 위반은 주로 공사경기(工事景氣)가 남겨논 선물이라고하며 범죄(犯罪)은 약 一천四백여인이나 되는데 대체로 다수를 점령하는 사건은 경찰범처벌위반과 절도도 박등이라고한다。

醉中言爭으로 青年을殺害
老人은新義州署가取調

【신의주】 二일오후八시경 평북 강계군 입관면 화양동 마선참 (江界郡入館面化陽洞■■站) 최경오(崔京浩)(三十)는 김경만(金京)의 방에서 신태준(申泰俊)(二七)과 술을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든도중 취중의 말다툼을하다가 김이신의 머리를 때린것이 원인이되어신은 동일 사망하엿으므로 강계경찰서에서는 김을인치취조하는 일방신의 사체를 해부에 붙엿다。

주(安州)방신안주(新安州)행八四 六호열차에 원흥포(元興浦)를 지내다가 술이대취한 안주군원흥리 (安州郡元興里)一九四 조정중(曺■) 白宗(六二)이가 중원되어 두부(頭部)와 좌편 눈에중상을 당하야 방금 신안주안제의원 (安濟醫院)에서 응급치료를 받는중이라는데 생명이 위독하다하며 또 동일 오후九시八분 신안주역착 七호 특급열차가 만성역(萬城驛)을 통과할시에 다미를교환하던 화부 일본내지인이 다마를 벗기지못하야 땅에 떠러지며

一日兩件의汽車事故

【신의주】 지난四일오후八시 안

大成校音樂

【웅기】 멀리 북만에가잇는 四十만 동포의 경경인 대성중학교(大成中學校)에서는 교사충축에 반만원의 조가 될가하야 동교교우회주최로 고국방문 순회연주의 길을 떠나게되엇다함은 본보를 통하야 누보한바이니와 동교일행은 북조선에서 간곳마다 대성황을 이루엇는바 그일행은 지난三일오후七시반부터 웅기좌(雄基座)에서 본보웅기지국후원으로 연주회를 개최한바 만의 천재적 음악을들으려 는 입수의 여자가없이 대만원을 이루엇으며 당석에서 동포에에 넘치는 보조금도 만히엇엇다는데 기 어려운만큼 명성이 자자하여 일행은 고국방문은 무사히 마치고 四일에 용정을향하야 떠낫다고한다。

雄基서大盛況

鶴南에痲疹
現在患者六十

【아남】 성진군학남면(城津郡鶴南面)지방은 지난三월경부터 마진(痲疹)이 창궐하야 지난四월 一일까지 죽은 十세미만의 어린이가 六十여명에 달하야 어린이를가진 하남인사는 불안과 공포에 싸여잇다한다。

入試落第悲觀코 絶壁서自殺企圖

【미린】 재령군 장수면 서림리(載寧郡長壽面西林里) 하생 김보(金保)(十七)는 작년에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금년 재령 명신고등과(明新高等科) 입시 시험에 수험한 바 자기생각으로는 시험성적이 양호한것으로 알엇는바 의외에 낙제됨을받고 심히 비관하야 서림리 수백척가량되는 석벽(石壁)에서 투신자살코저 하엿는데 전

一一 一 의 一一 一事 ■ 皇 一 ■ ■ ■

弱冠의 姦夫婦가 共謀코本夫打殺
검사는 두명에 모다 사형을구형
兩被告法廷서犯行否認

【해주】 二十세에 당과하는 간부(姦夫)와 간부가 그 남편을 죽여 살해하였다는 끔직끔직한 부서운 사건 (事件)을 죽이고 서울도부터 두 남녀에모두 사형의 구형을 받은 사실 인 바 그 사실 신천군 장양리 (信川郡長陽里) 배(裵)면 장양리 (信川) 박대근(朴大根) (一八)은 남편 한동리에 처음 송씨(宋氏)의 (■)와 자년五월이래 은근히 정을 통하야 오든바 항상 본부조치대문에 알밉한 부부의 생활을 못함을 한하든 끝에 간부주는 공모하야 작년 七월二十八일오후三시경 간부 바더김이가 본부(本夫)를 발로 차서 유인하야 살해(殺害)한후 피해자의 허리띠로 목매여 자살을 가장하야 주치를 벌판으로 위장하여 두엇다가 (■)의 모양으로 一시은폐되엇든 것을 해주지방법원 검사국에서 기소되어 해주지방법원 형사부에서 공판이 열렷는데 작년 경관 재판의 대정에서 一목 (해수)지방법원에 회부되어 왓엇는데 이 조서를 거부하야 해수지법에 압송되어 사건이 종결되어 유죄에서 선고되엇다가 二심으로 공소하야 지난 四일에 재개정되엇다。

이로 공판정의 공기가 떠불하게 뒤잇는 재판관 반시반검 (班時班檢)의 판정으로는 검사로부터 두 남녀 의 정교관계와 경찰의 조서를 방거하야 공모하여 살해하엿다고 두명에게 다 사형의 구형을 하엿는데 이에 앞서 두 피고는 사실을 부인하야 그 조서는 경관의 고문에 못이기어 강제로 허위자백 하엿다고 범행을 부인하는데 재판장은 변호사의 변론을 듯고 선고는 오는 十七일로 정하고 오후 一시에 폐정하엿다。

食刀强盜出現
鎭南浦府外에
현금과 금시계등 강탈도주
警察方今血眼活動

【진남포】 지난달 十九일 부외(府外) 오리(五里)에서 상인강도 사건이 발생하엿는데 대 아직도 해결되기전에 또다시 부외 대두리(大頭里)에 식도강도사건이 발생하엿다。지난 五일 새벽 一시경 부외 대두리(大頭里) 과수원하는 고병하(高炳夏) 집에 식도를 휴대한 강도一명이 침입하야 돈을 내라고 협박하야 현금다섯원가량과 금시계一개 시가약七十원을 빼앗아 가지고 도주하엿는데 범인은 四十세 가량으로 보히는 조선인이라고 진남포경찰서(鎭南浦警察署)에서는 매일 비상소집하야 부근에 비상선을 느리고 방금 범인을 엄밀수사중이라고 한다。

浦項裁縫講習會

◇時 日 四月十二日―五月十八日
◇場 所 浦項 쌍거 · 滿鐵裁縫社
◇主 催 싱거 · 滿鐵裁縫社浦項分店
◇後 援 東亞日報社浦項支局

鎭海觀櫻團募集

◇探勝地 大邱、慶州、佛國寺、釜山、馬山、鎭海、三浪津、統營、以上名所
◇日 時 四月十五日出發 六日間
◇會 費 七円(汽車賃、宿泊料及食費等)
◇申 請 北鮮 ■■■■、東亞日報支局
◇主 催 ■■■、北鮮 ■店村興
◇後 援 東亞日報支局

信箱

■■ 學父兄의 쟁송으로 ■■中에 잇든 ■■學校에는 요 사이 와서 校長과 敎員間에 사이에 분쟁이 잇어 一般의 注意의 的이되어잇다고。

高原 ■■■■■■■ ■■■■■■■ 記事의 ■■■■■ 한다고。

平壤 公立■■今年度■■入■■ 九十八名인데 ■■■■는 一百七十二名에 ■한 五五餘名、大■를보엇다고。

ClibPDF - www.fastio.com

黎明期 (85)

—(農村篇)—

張赫宙 作 · 鄭玄雄 畵

劇文學建設의길

—리알리즘的演劇性의探求—

(二) 朴英鎬

漢詩

紫白散人選

春夢 入選

咸州郡水楊面豐川洞 朴思祿

春日掩柴關
枕邊一夢遐
幽戶花陰靜
空庭草色閑
月暗羅浮下
雲深巫峽間
忽聞林鳥囀
驚起日西山

海外學藝뉴스

미국의標本劃大事에

태커리의遺品競賣

新東亞 四月號

內容豐富 大躍進號 發賣中

訓民正音과龍飛御天歌 …… 李克魯

朝鮮어데서金이많이產出하는가 …… 金聖浩

朝鮮文學의評論確立의問題 …… 金斗鎔

織物經濟論 …… 韓昇寅

文天祥의正氣歌解釋 …… 沙雲生

地方에게신父兄에게一言함 …… M生

學生들에어떠한書籍과雜誌가必要한가

權東鎭。安在鴻。崔鉉培。韓昇寅。李仁。李克魯。尹日善。金敬注。金台榮。李容卨。李榮俊。李一。李萬珪。李基潤。金相敎。金昶濟。白南薰。朴鶴田。朱基瑢。金永羲。張龍河。

評論家로서作家에게보내는便紙(第二回)

作家俞鎭午氏를論함 …… 安含光

申丹齋를追憶함

殘憶의數片 …… 爲堂

丹齋와「矣」字 …… 申錫雨

丹齋故友를追憶함 …… 海客

丹齋의天才와凝滯없는性格 …… 徐世忠

銀行會社의要求하는人物 …… A記者

한破門長老의手帖에서 …… 白夜庵主人

新幹會回顧記 …… 朴明煥

儒教와朝鮮 …… 孫晋泰

時事短評

小兒의體質異常이란어떠한것인가? …… 洋醫 李先根

韓末政客遺墨雜攷 …… 宋錫夏

에치오피아現皇帝即位秘話

故月南李商在先生逸話片片

民間五大專門學府新春計劃 …… 世專、普專、延專、佛專、梨專

經濟解說 …… 張鉉七

就職難問題 …… 極熊

小說 醜物 …… 朱耀燮

小說 이른봄 …… 崔仁俊

朝鮮八道民俗槪觀

이해이달의回顧 …… 逸民

世界의動向 …… 一凡人

受難期의英國政局 …… 白南教

時評

今春卒業生名簿

時事日誌

演說을잘하려면 …… 李正

民族性條件反射

神經衰弱의原因과療法

봄마음 …… 林鉉
달밤 …… 林和
點景에서 …… 柳致環

新東亞應接室 …… 編輯室

海外留學生小史

娛樂室

世界珍聞、벌과紳士(漫畵)、統計室、시럽슨아버지(漫畵)、外國時事漫畵、新語、新東亞入選笑話、春三題(漫文漫畵)、近代異聞三景(漫文漫畵)、뚝뚝이(漫文漫畵)、儉約의神僊(漫文漫畵)

四月情調

四月의煩惱 …… 丁來東
四月의郊外風景 …… 洪曉民
四月의스켈취 …… 崔永秀
四月과女人 …… 李康成

地方論壇 …… 鎭南浦篇

每號賣盡으로注文에應치못하는일이만사오니急速注文하시도록하시압 誌代三十錢 送料二錢

發行所 新東亞社 振替京城一四五〇〇

雄辯家나오라

國際的雄辯家 松岡洋右氏

그의功績은偉大

白紙委任狀으로

百萬長者의未亡人이 一朝에거지!

法律知識不足이原因

便紙란것은 이러케쓰는것

學校出과小店員의 興味잇는珠算레스트

◇外國人商會에서…

注意하라契約證

五萬圓땅이날너간 契約證書의 무서운挾雜

아무리어려운 願屆書式이라도 척척써진다

出版戰線異狀잇다

돈! 돈! 돈! 돈! 돈이돈을낫는

新利殖法의發表

致富冊은볏날일 발은簿記는 이러케記入한다

英語의新記憶法

頭腦의威脅

家相의吉凶

注意하시요 이러한집은

重役들도意外에조하한 숨은재간이因緣으로出世

能筆家는 出世가빠르다

筆法

于先就職

조흔講義錄을가려서 배우는것은半成功함 과갈다、諸君하루바삐就職하야立身成功하라

巡査となる早道 — 日本警務教育會

藥種商となる早道 — 藥業界는將來有望 — 藥種商講習會

鉄道員となる早道 — 一般部外者에서大募集 — 帝國鐵道教育會

郵便局員電信早道 — 官費勉學겨우一年卒業 — 帝國鐵道教育會

飛行家となる早道 — ◎大空의英雄아나오라 — 日本飛行教育會

運轉手となる早道 — 나도되고싶은運轉手 — 日本自動車教育會

産婆看護婦 — 志願者大募集 — 産婆看護婦學會

早稻田大學の講義錄

獨學의體驗談

敎員檢定突破 — 京都 堀江正夫

商賣에應用 — 岡山 津田

專檢에合格 — 廣島 福地美智子

不平없는勞働 — 長野 花岡子吉

中等學校程度	
中學講義	一月一圓 一ケ年
商業講義	一月一圓 一ケ年半
高等女學講義	一月一圓 一ケ年半
電氣工學	一月一圓 一ケ年

專門學校程度	
政治經濟講義	一月一圓廿錢 一ケ年半
法律講義	一月一圓廿錢 一ケ年半
文學講義	一月一圓廿錢 一ケ年半
建築講義	一月一圓卅錢 一ケ年半
電氣工學講義	一月一圓卅錢 一ケ年半

內容見本

見本請求할때는靈望하는講義名을正確히쓰시라。

讀者는總히本大學校外生으로待遇함

詳細는內容見本에依하야아시라

第一號旣히出來。小學校를卒業한분으로光輝잇는早稻田大學校外生이되는機會를勿失하라

申込所 東京·牛込 早稻田大學出版部 振替東京一一三三·電話牛込三四五

産業

朝鮮工業化問題 (十二)

金正實

[illegible]

▲朝鮮工業及年齡別 (昭和六年末, 單位人)

[illegible]

德川亢羅에 各地注文殺到

[德川] [illegible]

米生産費調査 四月中旬에 再開

[illegible]

螢등조림 百萬圓接近

[illegible]

産業俱樂部

◉ 藥種商을내라면?

[illegible]

地方産業雜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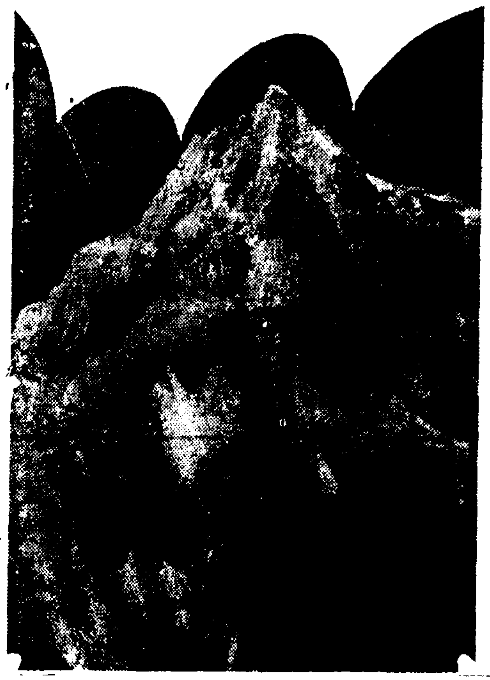
▲高原 [illegible]

스포―츠

登山과 캠핑 世界의 最高峰 에베레스트征服 ⑤

噫! 몬순襲來의 報 오뉴月눈 덥힌峯과 作別

에베레스트協會退却命令에 海拔二萬七千呎이 고작



○ 캠프도

[illegible]

○ 攻擊날

[illegible]

○ 命令을

[illegible]

○ 精碎를

[illegible] ……完……

日本卓球軍 開城서 一戰 十三日高靑軍과

[開城] [illegible]

今日의 運動

▼럭비 京商·遞商戰 午後五時 京城運動場

效力本位

●버짐●음낭습진●黑종●옴●태독●부스럼●吹出物●무좀●피종●쇠버짐●어루러기●땀띠●살비듬●여드름●옻종●肛門●가려움●도독놈●동상●안면●주근깨

皮膚病良藥 데―무水

全國各藥店에잇소

東京市芝田村町 大阪天王寺石ケ辻町 東京藥院

四月號 「新家庭」을 보셧습니가

趣味記事滿載

新家庭 四月號 發賣中

頭髮洗粉

花王シャンプー

화왕삼푸

近代女性의大歡迎하는高級洗髮料

花王샴푸는從來의洗髮料와는달라서 洗淨과美髮養毛의作用을兼한洗髮料입니다

近來上流家庭의婦人네와女學生을爲始하야一般女性間에 花王샴푸의愛用이 늘랄만치 旺盛합니다

花王샴푸는 [illegible]

長髮……二回 斷髮……一回 一個五錢

有力百貨店藥店에잇소

東京·花王石鹼株式會社長瀨商會·大阪

CAS-7

サッポロビール

アサヒビール

맛잇다! 먹어라!

榮養이잇고… 身體에조코… 는事實로보이는 이 삐―루!

最高級淸凉飮料

三ッ矢サイダー

リボンシトロン

朝鮮麥酒株式會社